

教育課程 開發의 原理

李 稱 燦

(江原大 敎育學科)

I

한국에서의 고등교육은 그 양적인 발전에 따르지 못하는 질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해방 이후 대학의 난립에 따른 이념의 혼란, 교육 내용의 적절성 부족에 따른 시간의 낭비,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에 따른 교육 효율성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은 기본적으로 敎育, 研究, 奉仕라는 3대 기능을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공동 사회를 존속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적 전리를 탐구하고, 인간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며,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보편 타당한 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은 앞으로의 과제로 양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질적 수준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미래 사회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위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조감해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질적인 문제도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등교육의 이념과 제도, 교육 내용과 방법, 학사 행정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들, 교육 및 연구의 자원 체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교육 내용, 즉 교육

과정과 관련한 문제만을 중심으로 그 발전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고등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주된 요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이 내세우고 있는 교육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교육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교육의 내용, 즉 각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는 구체적 교육과정이 된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져느냐에 따라 그 대학교육의 방향도 결정지어지며 전체 대학, 즉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 문제도 영향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신중을 신중을 거듭하여 조심스럽게 짜여져야 하며 그 내용이 대학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고등교육 현실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지 못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특정한 학과를 설립하기 위한 요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한 교수 요원을 채용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활용되어온 감도 없지 않았다. 더 심한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국내적 당위론을 명분으로 대학의 특정 학과를 설립하기 위한 1차

적 준비 작업이 외국의 유사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모방하는 일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후에 설립되는 여러 대학의 유사 학과의 교육과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처음 출발한 대학, 특정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국내 대학의 많은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교수 지향적인 교육과정(faculty-oriented curriculum), 또는 선진국 모방형 교육과정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나라의 고등교육은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내용의 적합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르쳐지는 교육과정이란 그러한 의미에서 위험스럽기 그지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III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무감각하거나 둔감한 고등교육은 시대착오적인 인간과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낙오자가 되는 사람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내용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즉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문 내용의 발전 분화의 추세나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변화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주된 이유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이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산업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전문 직업적 소양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기 위한 학문의 내용도 세분화되어야 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필연적인 일이 된다. 따라서 미래의 대학 교육과정은 과거와 같이 실증주의적이고 지나친 과학주의의 강

조에 의하여 역사성을 가진 학문의 내용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 아래에서의 세분화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래 지향적인 다원화된 고도의 공학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 내용이 더욱 심화되어야 하며, 그에 못지 않게 전문 전공 분야가 한 부분으로 통합되게 하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에 관계된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식의 내용도 다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문 내용의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다.

오늘날 학문 변화의 속도는 가히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Schwab 등의 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 폭발적인 지식량의 증대는 각 학문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대 혁신을 요구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새로운 학문의 분화에 따른 기본적인 학문의 paradigm의 변화, 새로운 방법론의 대두,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도구의 활용, 한국적 사회 여건 및 교육 현실에서 전혀 도외시 되어 왔던 새로운 사조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고 언제나 가변성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 내부의 여건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다.

오늘날의 한국 대학들은 조직의 비대화·거대화 에 따른 교육 경비의 효율적 배분, 조직 구성원의 제구성 그리고 학과의 증설 및 학과의 신설로 인한 기존 학과의 신설 학과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의 문제에 대응해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내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의 세분화 추세와 더불어 학문간에 연계성을 지을 수 있는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은 거대화되어 가는 멀티버시티의 또 다른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내의 새로운 학문 분야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각 전공 분야의 교육 시설 및 교육 설비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감안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IV

이상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새로운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 보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행에 옮기려면 상당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을 공동 묘지를 옮기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교수 요원, 학생 그리고 행정가 모두가 그들과 관계한 교육의 내용을 학문적 소유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학점이나 강의 시간의 감소 또는 양보는 권리나 재산권의 양보 또는 손실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까지 벌어진 한국 대학내의 많은 소요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존의 소유권에 대한 외부적 침해의 가능성을 놓고 벌여졌다. 학과의 발전적 해체 또는 소속 대학의 이동, 학과의 정원 조정에서부터 학과목의 존재, 필수·선택에 따른 시간 배당의 차이 등은 모두 그러한 소요의 불씨가 되어 왔던 셈이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일반적인 몇 가지의 원리, 즉 개발의 기본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로 한국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안되는 개발의 내용이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각 이익 집단의 요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혁 또는 개편이든지 그 내용을 전략적 수준에서 살펴 보자면, 하향식 방법(top-down strategies)과 상향식 방법(bottom-up strategies)이 있을 수 있다. 하향식 방법이란 권위주의적인 전략으로 몇몇의 정책 입안자 또는 결정자가 내린 결론을 비판 없이 무제한으로 명령을 하달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상향식 방법이란 민주주의적 전략으로 어떠한 결정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 입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부분 하향식의 방법이 쓰여져 왔다. 실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시행해 나가는 교수들이나

그러한 교육과정을 배워 나가는 학습자들의 의견 또는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학과의 학문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몇몇의 영향력 있는 교수 또는 인사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다른 교수진이나 학습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는 가르쳐지는 또는 배워 나가는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새로와질 수도 없고 더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도 불가능해진다.

둘째로 한국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설정의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만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정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앞에서 지적한 교육과정 설정의 방법을 상향식으로 조정해 보자는 생각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력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위 각 학문 분야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영역의 분류 제시가 그 한 가지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주어진 여건, 즉 교수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전공하고 있는 영역,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재료의 내용, 설비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 심지어는 학습자의 수준과 규모,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에서의 교육과정 개혁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은 모든 여건을 접어 놓은 채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가능한 대로 시간을 끌어 가면서 그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한정된 교수의 수와 질을 가지고 이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학문 내용의 영역별 분류는 이미 채용한 각 학과의 교수들간의 전공 영역을 재편할 수도 있고 새로운 교수 요원의 충원을 이상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된다.

세째로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치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의 대학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고 새로운 내용의 반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단시일내의 교육과정의 개발은 줄속을 가져 오기가 쉽다. 더구나 대학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적 성향은 단기간내의 대규모 변화에는 저항감을 일으키게 된다. 변화의 방향이 교육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은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각각의 대학마다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네째로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누구나 강조가 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막연한 감이 없지 않다. 설혹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안에는 개발의 방향과 내용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르쳐 나가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개발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쉽다. 만약 교수들의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이 개발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개발의 의도는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발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교육과정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해방 이후 얼마간을 제외하고는 입학 정원에서부터 졸업 학점의 수, 교양과정 대 전공과정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아 왔다. 이와 같은 외부의 간섭 결과 대학은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

고, 수많은 내용들이 군더더기 식으로 대학 교육과정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효율적인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것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이 가지는 건학 이념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의 대학도 100여 개를 넘어서게 되었고 지역마다 국립 지방 대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요즘에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지방 대학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발맞추어 각 대학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의 특성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千篇일률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갖춘 규격품을 길러내다 보니, 수요는 있으나 공급을 하지 못하고 전국의 어느 대학이나 같은 수준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 대학의 서열이 매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리 좋은 입학생 선발의 방법을 제시하여도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학교간의 서열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V

지금까지 효율적인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전략 또는 원리들을 개괄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과정 개발의 내용면을 살펴 보기로 한다. 새로운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떠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할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계성(sequence)의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독립적으로 또는 별개의 것으로만 개발될 수 없다. 아래로는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연계지어져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위로는 석·박사과정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흔히 학부 수준에서의 교양 과목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재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되어 있고 석·박사과정의 교육 내용은 학부 수준의 전공 교육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도록 되어 있다.

두번째의 내용으로는 교육 내용의 범위(scope)의 문제가 있다. 전공 영역간 또는 전공 학과간 그리고 각 교과목간의 중복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대학의 관점에서 학과간에 중복되게 개설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체 교육과정의 재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공 학과간 또는 전공 영역간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야 한다. 한편 폐쇄적인 대학간의 교육과정 운영을 탈피하여 가능한 대로 다른 대학과의 학결 또는 교과목 운영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수 요원이나 시설 또는 기자재의 준비가 미흡한 한국 교육 현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의 교육과정 내용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는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과의 배분의 문제와 계속성(continuity)의 문제이다. 졸업을 하기 위한 학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간의 학문적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학점수의 확보 경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민주 사회의 교양인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교양 교육과정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의 다원화된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적 전문인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인 대학교육의 목적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효율적인 계속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네번째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는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필수와 선택의 배분 문제이다. 대학의 운영을 생각하는 행정직자들

은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일의 편의성만을 생각하게 되고 보니 주어진 범위내에서 쉬운 쪽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문의 내용이 심화되고 전공 내용이 세분화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배워 나가야 할 양은 많아지고 그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없는 형편에서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재량권을 주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단시일내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또한 같은 교수들 중에서도 전체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들 중에서 자신이 전공하는 교과목이나 영역이 중요한 필수 과목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필수 과목의 비중은 커지게 마련이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다양한 사회를 살아갈 주인공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대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다섯째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대학에서의 학문 내용과 사회 각 분야의 실제 현장과의 관련성(relevance)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이다. 가능한 대로 현장 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학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의 내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여섯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부전공의 이수 또는 복수 전공의 허용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문제이다. 앞서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학문 영역의 전문화·세분화 현상은 그것을 전공해 나가는 학습자들을 편협한 전문인으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세분화된 한 가지 전공 영역 이외에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또는 통합화(integration)를 기하여야 한다. *